

개교 47주년 기념 & 스타센터 개관 기념축하행사 풍성



총학생회에서는 '우리는 하나, 전주대학교' 라는 주제로 스타센터개관 기념 카드섹션을 펼쳤다. 사진은 스타센터를 이미지화한 'STAR'의 모양의 대형 카드섹션

장기근속 43명, 스퍼스타교수·직원상 23명...6일 휴강 정몽준의원, Richard A. Levao총장 명예박사학위수여

개교 47주년을 기념하고 스타센터 개관 축하하는 행사가 교내.외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5월 3일 오후 4시에는 스타센터개관 기념식이 스타센터 다목적홀에서 펼쳐진다. 경배와 찬양학과의 식전공연으로 오프닝영상, 축하공연, 이남식총장의 기념사, 하용조 이사장의 격려사 총동문회 발전기금 약정식, 스타센터를 설계한 아론 탄의 스타센터 동영상 소개되며 테이프커팅식과 함께 참석자들은 스타센터 투어를 실시한다.

이에 앞선 9시 30분에는 JJ아트홀에서 개교 47주년기념식이 열린다. 개교기념행사에

는 스퍼스타 교수상 및 스퍼스타직원상 시상, 연공교직원에게 연공패를 수여한다. '스퍼스타 교수상'에는 변주승교수(역사문화콘텐츠전공)와 20명의 교수가, 스퍼스타 직원상에는 전재홍계장(학생지원실), 이범수계장(관재지원실), 유봉수계장(대외협력홍보실)이 수상한다. 연공패는 30년, 20년, 10년으로 나눠 장기근속한 교수와 직원 43명에게 수여한다. (10면 참조)

또한 정몽준 의원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브룸필드 총장인 Richard A. Levao 박사에게 명예교육학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한다. (관련기사 2면)

캠퍼스 내 작은 캠퍼스로 불리우는 스타센터는 세계적인 건축가 아론 탄의 작품으로 2층, 지상 4층에 34,592m²(약 10,464평) 규모로 320억 원의 건축비가 들었으며 완공에 4년여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관련기사 6면)

이남식총장은 2003년 취임 후 지금까지 기숙사건물인 스타타워 건축 및 건물리모델링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왔다. (관련기사 8.9면)

/김광룡 기자

■지·면·안·내■

- 2~4 News
개교 47주년 기념(명예박사학위수여)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MOU체결 스타센터개관 카드섹션행사 2011 시민감사축제 대학청년 고용센터개관 2011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수상
- 5 Opinion
- 6 Story
스타센터 설계자 아론 탄과 길건축
- 7 Opinion
총동문회, 교수칼럼, 사설
- 8~9 Jump On
총장 인터뷰
- 10 People
장기근속수상자, 스퍼스타교수·직원상수상자
- 11 Campus Life
학교기관 소개, 동아리소개 게릴라인터뷰, 스토리
- 12~13 Mission
로고스, 진리의샘, 겨자씨 선교소식, 기독교 투고
- 14 중국어 신문
- 15 The JJ Globe

전주대신문 창간 1965년 5월 15일

우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00 전주대학교

발행인 이남식/편집인 양병선/편집국장 인쇄 제일출판/편집국 220-2442/운영실 220-2441

더 멋진 대학, 더 멋진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새들과,
물속을 유유히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을 생각해봅니다.
저들은 비누 없이 몸을 씻어도,
안경과 옷을 입지 않아도
주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거슬리지 않고서 자유롭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저 꽃들은 아름다움으로 주님
께 영광 돌리며,
흐르는 시냇물도 강과 바다로 점점 넓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저희들은
과연 얼마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며,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변화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리심으로 저희들의 죄악,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교만함,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못박아놓고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
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
다. 저희들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신 전주대학교가 47년이 되었습니다.
스타센터도 완공되었습니다.
이만큼의 성장이 있기까지는 따뜻한 날들도,
모진 비바람의 날들도 있었습니다.
말씀과 세상과의 사이에서 방황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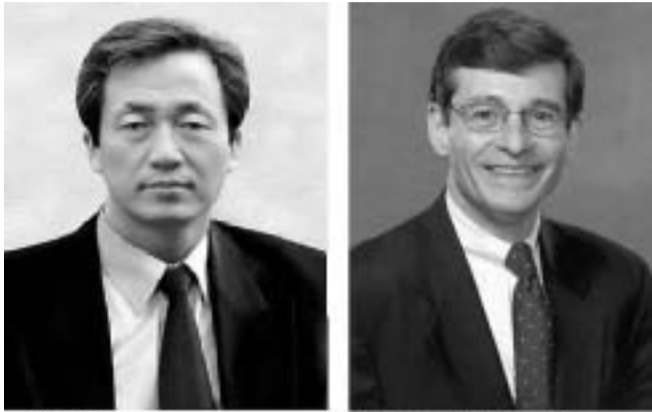
비옥한 말씀의 터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꽃들처럼, 저 새들처럼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자유롭게 주님이 만드신 우주공간을 채
우기를 소원합니다.

전주대학교를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주
시옵소서.
이들을 키워내는 저희 교직원들이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
더 멋진 대학, 더 멋진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동석 장로(경찰행정학전공)

개교 47주년 기념 명예박사학위 수여

명예경영학박사 정몽준 의원, 명예교육학박사 Richard A. Levaio 총장



(왼쪽부터) 정몽준 의원과 Richard A. Levaio 총장의 모습이다.

제 47주년 개교기념식행사가 5월 3일 오전 9시 30분 JJ아트홀에서 열리는 개교 47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정몽준 의원(한나라당 전 대표 최고위원)에게 명예 경영학박사, Richard A. Levaio 미국 브룸필드대학 총장에게 명예 교육학박사를 각각 수여한다.

정몽준의원은 서울대, 미국 MIT 경영대학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 하였으며, 한나라당 국회의원(6선, 대표 최고위원), 한미의원외교협회 회장, 울산대학교 이사장, 국제 축구연맹(FIFA) 부회장, 아산재단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명예 이사장, 고려대학교 재단이사 등

을 맡고 있다. 정몽준 회장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한 노력, 의료서비스 등 사회복지분야 사업 참여로 국민복, 첨단 산업분야의 교육인재 육성, 스포츠 외교 및 문화발전,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한 문화 및 경제발전, 특히, 실질적인 투자를 통한 전북발전 기여와 함께 동서와 지역과 중앙의 동반성장이라는 혁혁한 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기독교 교인으로서 선교활동, 헌혈운동을 비롯한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폭넓은 기여를 했다.

명예교육학박사학위를 받는 부름필드 총장인 Richard A.

Levaio 박사는 Rutgers대학교를 나와 Cornell 법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Richard A. Levaio 박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법조분야에서 일하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브룸필드대학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Woodrow Wilson 국립 협력 재단, Mountainside (건강)병원 재단, 국립 독립 대학 연합, 장로교 대학 연합회, Rutgers 대학 등에서 사회분야와 전문분야에서 각각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육정책 분야, 선거 컨설팅 분야, 법률분야에 헌신적 봉사를 하였다.

또한 브룸필드 대학과 우리대학, 또는 한국 대학교 간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데 힘쓰고,

각별한 애정으로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양국 대학 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대학의 경우 2001년 IT 연수 프로그램, 2006년 우리대학과의 공동학위 프로그램, CAT 프로그램, 2008년 방학기간 중 단기 어학연수 등 다양한 학사교류 활동을 실시하여 양교의 문제를 넘어 양국 간의 고등교육 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김광룡 기자



▲ 러시아 대사관 초청 특강을 통해 '한, 러관계의 미래'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새만금사랑환경연합, 러시아대사 초청 특강

한, 러관계의 미래전망'

새만금사랑환경연합(회장 김옥길)이 23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초청특강을 했다. 콘스탄틴 브누코브 러시아주한대사가 '한, 러관계의 미래전망'이란 주제특강을 통해 한, 러는 6자 회담국 중심으로 상생주의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남식 총장과 이경일 이스타항공그룹

부회장 및 도내 대학생과 새만금사랑환경연합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러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새만금사랑환경연합(회장 김옥길)은 "새로운 한·러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정책을 정부정책으로 펴고 있어 한·러관계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수습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MOU 체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미래 비전 제시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프랜차이즈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대된다.

우리대학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김용만)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포괄적 산학협력을 통하여 프랜차이즈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진행하였다. 또한 취업 지원 및 프로그램 공동참여, 산업체

현장실습, 프랜차이즈 분야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남식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식 세계화에 체계적으로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 최신 동향과 정보를 습득해 향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고용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장은 '2010 세계프랜차이즈대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작년 10월에 열린 '2010 APFC' 서울총회를 자문하여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권희망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스타센터개관 기념 초청 특강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최시중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9일 온누리홀(스타센터 1층)에

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최시중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은 "스마트 시대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고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뤄지는 콘텐츠, 막힘없는 이동성,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대이다."고 말했으며, "상상한 모든 것을 현실화 했을 때 콘텐츠는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했다.

동정



이남식 총장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의 자격으로 4월 28일부터 29일

까지 회원교 총장 100명이 모인 가운데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3층 양식당에서 제6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박철/한국외국어대 총장) 정기총회에서 세미나 진행을 맡았다.



김영신 교수(음악학과)가 지난달 30일 오후 3시에 예술의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피아

노 독주회를 열었다. 김영신교수의 독주회는 2005년과 2009년 KBS 음악실을 통해 라디오로 방송되었고, 2007년에는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초청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스타센터 개관기념 대형 카드섹션 행사 열려



▲ START CENTER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우리대학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총학생회(회장 박솔/경영대학)는 지난 27일 오후 4시 스타센터 광장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주제로 스타센터 개관기념 대형

카드섹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스타센터 개관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교직원과 학생 약 600명이 참석하여 대형 카드섹션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스타 센터를 이미지화한 'STAR'의 모양으로 대형 카드섹션을 진행한 뒤 전북 최대 현안인 LH 분산배치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LH' 로고를 카드섹션으

로 진행했다. 카드섹션 본 행사 영상과 메이킹 영상을 편집하여 스타센터 개관 행사 시 상영하고, 메이킹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한다.

박솔 총학생회장은 "먼저 스타센터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개관에 맞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역사에 남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LH분산배치를 위한 일환으로 전북 도민과 함께 우리대학 학우들의 염원을 담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선화 기자



▲ 전문 컨설턴트의 진로 및 구직상담을 통해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의 달인이 되는 '대학청년고용센터' 학생회관 1층에

잡(Job)아라 젊음(Young)을!! 뛰어(Jump)라 미래(Future)로!!

우리대학 학생회관 1층에서 대학생들의 취업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캠퍼스에 상주한 민간 취업 전문 컨설턴트인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운영한다.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진로 취업분야 전문가 3명이 상시 근무하며 학생 상담 및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 개인의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업체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며 직업심리검사, 직업탐색,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청년고용 전산망인 잡영(Job Young)에서 자신이 속한 대학을 클릭하여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인터넷 상담 예약을 먼저하고 지정된 날짜에 고용

센터 방문해야하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이 우리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꼭 4학년이 아니더라도 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기에 1~3학년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학청년고용센터 관계자는 "이곳이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학과(전공) 교수님들께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는 곳이었 바라며, 잡(Job)아라 젊음(Young)을!! 뛰어(Jump)라 미래(Future)로!! 라는 슬로건처럼 젊음을 잡고 미래로 뛰어나가는 대학 청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망 기자

우리대학 2011 시민감사축제 열려

시민들에게 건강 및 체험 서비스 제공

우리대학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5/2~5/4) 3일간 본교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2011 시민감사축제>를 펼쳐진다. 2003년부터 진행한 시민감사축제는 8개 단과대학과 학생지원실 등 참여하여 무료 서비스 및 체험현장, 볼거리가 준비 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일부터 상담카페, 미래를 디자인하는 슈퍼스타, 조선왕조실록 과학지, 길 사진 및 영상 전시전, 먹거리 나눔, 음식 체험, JJ아름다운 체험

관리, 발효과학 체험전, 매직풍선 만들기, 생활 속의 수학 탐구 디자인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 된다.

히 시민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며, 대학발전에 대한 배려와 보은의 뜻을 전한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현수(대체요법 2)학우는 "이번 시민감사축제를 통해서 내가



▲ 가족이 함께 모여 시민감사 축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전공하고 있는 대체의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 또한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선화 기자

자기이해와 진로설정 위한 진로설정 프로그램 열려

생애개발지원실(실장 이춘희)은 1~2학년 중 15명, 3~4학년 중 15명을 선정해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로설정 프로그램'을 집단상담실(스타센터 237호)에서 열었다.

본 행사는 자기이해와 진로설정, 진로 및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1~2

학년의 진로설정 프로그램은 '꿈꾸라 JJ'라는 주제이고, 3~4학년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이다. 이 프로그램은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이며, 수료증 발급과 Star-T 포인트가 정립 된다.

/권희망 기자

기사제보 220-2442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어린이 날!

전주대학교가 어린이와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개관기념 '2011 어린이 날 가족문화축제'는 푸짐한 경품과 다채로운 공연, 어린이 체험행사를 전주대학교 총동문회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실천과 환경사랑의 일환으로 어린이 사생대회 물품(크레마스, 도화지)은 집안의 묵은 도서(헌책)와 교환해 드립니다. 보내주신 도서는 작은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즐거운 어린이 날, 자녀에게 공을 선물하세요.

| 일시: 2011년 5월 5일(목) 10:00 - 16:00 | 장소: 전주대학교 천장관 잔디밭

참여 마당	공연마당	어린이체험 마당	푸짐한 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사랑 사생대회 ★ 우리집 가훈만들기 ★ 가족 노래자랑 ★ 명랑운동회 ★ 흥상 팔리마시기 ★ 퀘보레 신차 시승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마음원단 ★ 키다리 뽀예로 ★ 드림하이 ★ 버블매직 ★ 초대가수 심신, 이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비우스 ★ 페이스페인팅 ★ 매직풍선 ★ 바깥개비 만들기 ★ 나만의 목걸이 만들기 ★ 오뎀조물 피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냅칭고 등 가전제품 ★ 어린이용/성인용 자전거 ★ 제주도 숙박권 ★ 진안 흙부리 흥상 ★ 기능성 리본/떡이썬 등 ★ 24석 크레마스 ★ 아와용 도자비(선학순) ★ LH분산배치

전주대학교 총동문회 문의 TEL. 220-2477



▲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박수로 자축하고 있다.

2011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

스타트랙 활용 및 스터디 그룹 형성

2011년 4월 24일 시행된 보험 전문인 1차 시험(주관 금융감독원) 가채점 결과 우리대학 '금융보험학과 스타트랙 손해사정사반'에서 총 33명(보험계리사 2명, 손해사정사 31명)이 합격하게 되었다. 보험계리사 1차 시험 합격자는 안주연(금융보험4), 김희경(금융보험2)이다. 손해사정사 1차 시험 합격자는 광병길(금

융보험 4) 외 30명이 합격하였다. 1차 시험 대비반은 작년 12/20~4/24 직전까지 기초강의 및 문제풀이 등 과정을 거치며 4개월간 운영되어 왔다. 김광국교수(금융보험학전공)는 "학교에서 스타트랙 동아리로 지원해주는 것이 동아리 유지의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며 "6명 내외의 소단위 스터디그룹 학습방법이

많은 합격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하였다. 손해사정사반에서는 이번 8월 28일 실시 예정인 '보험전문인 2차시험'에 대비하여 5월 2일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강사진은 금융보험학과 교수(김종국, 양희산, 은종성, 김광국) 및 외부 초청 강사들로 구성된다.

/김광룡 기자

기업체 임직원 초청 세미나 열려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여 취업률 향상



▲ 기업체 임직원초청 세미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업률 향상에 도모하고자 했다.

학생에 개발처(처장 고준석)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까지 스타센터 운누리홀에서 '기업체 임직원 초청 세

미나'를 열었다. 기업체 임직원 초청 세미나는 4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임직원들을 초청했다. 취업주임교수와의 만남의

자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업률을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선철 처장(선교지원처)의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총장 인사, 캠퍼스 투어 및 문화행사(판토마임, 성악), 기업체 대표 축사로 진행됐다. 고준석 처장(학생애개발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양성에 대한 고견을 수렴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학교와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화 기자

교직원 학생 등 300여명 교내·외 자연보호행사

지난 28일(목) 화창한 새봄맞이와 교내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보호 행사를 실시하였다. 행사 시작에 앞서 고정수 실장(선교지원실)의 대표기도가 있었고, 총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날

식 총장은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대학 본부 앞 계단에서부터 학교 주변까지 약 3시간(15~18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연보호 행사는 매학기 1,2회 진행되며 이번 행사는 교직원, 총학생회 관계자, ROTC, 외국인 학생들 등 300여명이 자발적인 참가했다.

음악과 제 52회 정기연주회

음악학과는 지난 29일(금) 52회 춘계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이미리(3학년)학우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되었다. 음악학과 학우들은 총 18곡을 피아노, 소프라노, 비올라

등으로 멋진 연주를 소화해 냈다. 김용진(음악학과장)교수는 "오늘 이 연주회는 무대에 서는 연주자들 각자의 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자리다"며, "연주자들이 이 자리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며 음악을 통하여 기쁨을 주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유정 기자



▲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외식산업학과 학우들. (뒷쪽 왼쪽부터 오른쪽방향으로 김은경, 김유미, 손국, 이로미학우, 앞쪽 왼쪽부터 오른쪽방향으로 권유진, 김세현, 김민재학우)

외식산업학과 '2011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2년 연속 금메달 수상

전주지역의 특색 살린 메뉴 개발 호평

외식산업학과(학과장 민계홍) 학우 8명이 지난달 12, 13일 서울 양재동 aT Center에서 열린 '2011 서울 국제요리경연대회' 2개 부문에서 모두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찬 음식과 더운 음식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전북 인근 지역과 전주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외식산업학과 학우들은 건강식으로 메뉴상품화를 시도하여 독창성, 실용성, 표현성 등 심사기준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전효진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했고, 4학년 고윤미, 김유미학우, 3학년 이로미학우, 2학년 손국, 김은경, 권유진, 김민재, 김세현학우로

총 8명이다. 이 학우들은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리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로미(3)학우는 "부족한 준비과정에 비해 너무 큰 상을 받아 감사하다. 우리학교의 이름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한 몫하여 뿌듯하고 국외대회도 출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민계홍 학과장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개 부문에서 모두 금메달을 수상하여 우리 대학의 자랑거리가 되어 기쁘다. 공모전 및 조리대회 등 전국규모 경연대회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는 성과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망 기자

태권도학과 승승장구

태권도 대표 시범단으로 우리대학 학우 최종확정

지난 3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2011년도 한국대학태권도연맹 대표시범단 선발전'에서 장재희(4), 강하늘(2), 김태연(2)학우가 4월 13일에 최종 확정되었다.

100여명의 출전 학생들 중 선발된 우리대학 학우들은 2011년 한 해 동안 시범단으로서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국내 및 국외 모든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장재희(4학년)학우는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노력하여 더 큰 곳에 나갈 준비를 하겠다."며 큰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김태연(2학년)학우는 "지금 무릎부상으로 6개월정도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재활훈련을 통해 빠른 회복으로 1년뒤에는 태권도시범이라는 종목을 세계에 더



▲ 태권도학과 학우들이 선발전에 나가 시범경기를 하고 있다.

알리겠다"라고 말했다고, 최광근 교수는 "지난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2명, 세계태권도연맹 대표 2명에 이어 이번에는 3명이 선발되어 모두 7명의 대표선수를 선발시킴으로써 짧은 역사 속에서 태권도시범의 명문학교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유정 기자

한국기업문화 체험기

벽찬 유학생할, 그러나...대전 첨단과학관 관람



서청
(중국유학생, 물류무역전공 4)

4월8일 "한국기업문화체험" 교과목 수강생들인 유학생 90여명이 대전에 있는 첨단과학관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방문하였다.

"한국기업문화체험"은 전주대학교에서 외국유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개설한 교과목인데, 이 수업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기업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으며, 유학생들과 취직준비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교과목을 수강하면 한국기업체와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유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작년 가을에는 청와대와 신세계 백화점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대전 대덕특구로 가게 되었다.

먼저 첨단과학관을 관람하게 되었는데, 가이드의 쉬운 설명으로 한국 과학기술에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었다. 첨단과학관에 들어가자, 예쁜 여직원이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해주셨다. 첨단과학관에는 대덕특구 내의 정부출연연구소를 모두 볼 수 있게 연구소들의 소개 및 성과물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우리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체험도 경험했다. 첨단과학관에서 과학과 예술의 만남인 X-Ray필름을 이용한 그림도 봤고 천문연구원, 전기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에 들어가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도 구경했다. 특히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전시된 자기부상열차모형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 자기부상열차는 한국과학자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일본, 독일보다 더 우수한 기술이라고 소개해주었다.

이번엔 장소를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옮겼다. 한국 한의학과 중의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중일 3국의 침술 간 차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궁금했었다. 강의를 들으며 나의 궁금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

다. 한국의 경혈과 경락 내지 한방한약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 중국 및 일본의 전통 의학법과 차이점이 많다고 깨달았다. 강의 후에 체험관에 가서 한의학에만 있는 사람의 사상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에 대한 설명도 들으며 각자 기제로 체질을 검사했다.

이번에 배우고 느낀것이 많아 대전 과학관 방문을 직접 주선해주신 제혜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번 방문을 기획하고 지원해주신 생애개발지원실 이 명숙 과장님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이번 관람은 한국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한국유학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많은 유학생들에게 이 교과목 수업을 권하고 싶다.

역사문화콘텐츠 전공 답사기

남도,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 우뚝 솟다



이혜민
(역사문화콘텐츠 1)

역사문화콘텐츠 전공에 들어와 첫 춘계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답사는 '남도,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 우뚝 솟다!' 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다산초당과 망금대, 용장산성이다. 다산초당은 조선시대 대표적 실학자인 정약용이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곳인데,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길이 다듬어져 있었고, 그리 높지 않았지만 오랜만의 산행이라 올라가는 길이 조금은 힘들게 느껴졌다.

다산초당에서 변주승 교수님은 유배지가 지금과 같은 기와집이 될 수 없고, 주변에 개울은 흐르는 절경을 비판하시며, 유배지가 아닌 별장 같다고 말씀하셨다. 초가집의 관리가 불편하나 당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이 관리의 용이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또 겉보기 좋은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성격

또한 연관지어 보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진도의 용장산성이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 고려조정은 치욕적인 조약을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삼별초는 진도로 내려와 항쟁하였는데, 이때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군의 대몽항쟁 근거지로 삼은 곳이 바로 여기이다. 산성은 현재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중이었는데, 교과서나 뉴스에서만 보던 문화재 발굴 현장을 직접 보게 되어 매우 신기했고, 발굴팀의 해설까지 함께 들어 현장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현장에서 재미있었던 점은, 선배들이 발굴지 주변에 버려져있는 돌 같은 것을 관찰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돌이 아닌 기와 파편이라고 했다. 비록 흙 묻고 깨지고 문양도 닳아진 것들이지만, 선배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내는 것에 신기했다. 작고 사소한 것들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에 앞으로 나도 사소한 것이라도 세심하게 짚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도 나중에 '선배들처럼 작은 것도 후배들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더욱 전공 공부에 힘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인지라 조금은 막막하고 생각없이 다녀올 뻔 했지만, 선후배간, 동기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더욱 친해진 것만 같고, 대학생활의 추억도 하나 더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구경 다녀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몸소 깨닫게 된 더욱이 의미 있었던 답사가 아니었나 되돌아 보게 되었다.



명랑해전으로 유명한 진도 울돌목

중국유학 체험기

두려움으로 시작, 그리움으로 남은 6개월



윤혜정
(중어중문 4)

중국을 다녀온지도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년이란 세월동안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일수도, 긴 기간이라면 긴 기간일수도 있는 중국에서 보낸 6개월의 생활을 단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이 기억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기억이다.

대학 3학년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6개월 동안 장학생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난생처음 중국 땅을 밟고, 중국 북경 '어언대학교'라는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기숙사에서 하루 밤을 보내던 날 부모님, 친구들과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염없이 3일을 보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겨우 6개월인데, 내가 왜 이려고 있는거지?'라는 생각에 무작정 방을 나왔다. 그리고 같은 층에 있는 한국인들을 둘러보고

다녔다.

마침내 한 한국인들의 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저 같이 얘기해도 될까요?" 요즘 젊은 세대의 말로, 이 행동은 정말 손발이 오글거리는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운 좋게도 그 한국인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친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중국생활 적응기가 시작되었다. 이윽고 중국에 온지 2주쯤 되었을 때, 강이 시작되어 수업에 참여했다. 처음 배정된 반에 들어섰을 때, 나의 마음은 매우 설레지만 두려움이 앞서있었다. 그 이유는 어려워하는 영어를 쓰는 가지각국의 외국인들이 다 모여있었기 때문이다.

몇 일간 교실안에 온통 영어소리만 들렸고, 그들이 쓰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학생은 동양인 학생

들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함께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어로 대화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함께 놀러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5개월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그 사이에 중국인 친구와 이탈리아 친구, 미국인 친구, 영국인 친구 등 가지각국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이 되어 한국에 돌아오는 날 우리는 모두 헤어지게 되었다.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즐거웠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 되새겼다. 그리고 그 생활의 기억은 모두 즐거웠던 기억 밖에는 없어서 커다란 아쉬움이 마음을 가득 매웠다. 6개월의 중국유학 생활을 통해 배운 것들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 세계적인 건축가 아론 탄의 설계

조형성, 정교한 디자인, 다양한 콘텐츠, 국내외 건축전문가 방문 문의 잇달아



유비쿼터스 기능을 갖춘 중앙도서관, 디지털 개념의 문화시설, 동시통역시설이 있는 컨벤션센터와 강의실, 체육시설, 푸드코트 등 학생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이 총 집결된 스타센터에는 공사비 380억, 완공에 4년여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005년 10월 11일 건축설계경기지침서 공고에 내노라 하는 국내의 총 5곳의 회사에서 공모에 참여, 홍콩출신의 건축가 아론탄이 이끄는 RAD와 길건축의 합작품이 당선되었다.

백석종 캠퍼스건설단장은 당선작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독특한 컨셉의 건축물이라 사실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손톱보다 작은 집에 수만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시대에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타센터를 계획한 아론 탄(사진)은 홍콩인으로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하버드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RAD(Research Architecture Design)의 설립자인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SK텔레콤 본사 건물, W호텔과 웨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 홍콩 AIA 빌딩, 인도 하얏트 호텔, 중국 베이징 국제학교 등을 설계했다. 그의 활동영역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까지 전 세계를 망라하고 있다.

스타센터는 뛰어난 조형성과 정교한 디자인컨셉, 다양한 콘텐츠 등으로 국내외 건축관계자들의 방문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스타센터를 이용한 지 2개월이 되었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꽤 높다. 보람을 느끼실텐데

감사하다. 우리도 일할 때 재미있게 신나게 했다. 스타센터를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건물이다. 지난주에는 한국건축가협회 회원 50여명이 관람을 했다. 좋은 평을 받고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

▶ 개인적으로 센터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실내,외 공간은

모든 곳에 애착이 간다(웃음). 12개국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온누리홀(컨벤션센터)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국제회의가 가능한 곳.

분수대는 만남의 장소로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곳으로 거기에서부터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가운데가 오픈되어 있어 건물과도 잘 어울리고 채광면적이 넓어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다.

▶ 스타센터가 어떤 건물로 이용되길 바라는가

스타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스타센터에서 꿈을 찾길 바란다. 또한 그 꿈이 그곳에서 무르익기를 바란다.

스타센터는 이미 전북의 대표건물이 되었다. 올해 한국건물문화대상에 출품할 계획이다. 스타센터 관람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 유럽은 물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도 유료관람건물이 많다. 스타센터도 방문희망객이 늘게 되면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유료관람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처칠은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우리를 만든다고 했다. 인간에게 건물은 무엇인가 건물은 사람과 호흡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건물은 인간에게 생각과 즐거움을 제공해야한다. 즉 건물과 인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스타센터는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한다.

▶ 길건축의 비전은

길건축 직원이 100여명에 이른다. 1인당 1억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5년에는 우리 사무소에서 설계한 건물의 모형 100개를 만들어 전시할 계획이다. 건축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리고 싶다. 이를 통해 건축인에게는 보람을, 후배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싶다.

▶ 스타센터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텐데 한마디.

좋은 건물이 탄생하기까지 학교관계자들의 도움이 많았다. 특히 이남식총장님과 백석종교수님께 감사하다.

총장님께서 좋은 건물을 위해 설계자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셨다. 덕분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백교수님은 설계도면 한장한장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셨다.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셈이다. 그로인해 체중이 8kg이나 빠지셨다.

스타센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감사를 전한다.



아론 탄과 함께 스타센터를 설계한 (주)길건축사무소 이길 환대표를 만났다.

▶ 세계적인 건축가인 아론 탄과 함께 설계를 하셨는데요.

아론 탄과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제설계까지 홍콩과 전주를 오가며 함께 작업을 했다. 아론탄은 계획설계를 주관했고 길건축에서는 실시설계를 주관했다.

▶ 스타센터 현상설계 공모전에서 우수한 건축설계 회사를 제치고 길건축이 당선되었다. 당선요인은 무엇이었나

지역과 주변환경과의 어울림, 주변 건물의 활용, 기존건물들과의 연계성, 특수한 구조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다.

▶ 센터 내에 많은 기둥과 창들이 인상적이다.

X자 기둥이나 부정형기둥 등 구조와 연계된 것인데 굳이 노출시킨 것은 디자인적 요소를 생각해서였다.

창은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도서관은 채광이 많으면 책이 상한다. 일조량도 조절하는 용도성과 조형성을 생각해서 도입했다.

개교47주년과 스타센터개관을 축하하며



임정엽 총동문회장

5월 5일은 전주대학교가 47번째 생일을 맞는 뜻 깊은 날입니다.

5만 5천여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 오랜 산고를 거쳐 그 위용을 드러낸 스타센터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스타센터가 있기까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모교 이남식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모교 발전을 열망하는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타센터가 개관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대학보다 훌륭한 학습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대 남노송동의 영생대학을 기억하는 동문과 80~90년대에 대학을 졸업한 선배들은 모교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워하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재학생 여러분의 해주어야 합니다.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성장해 주어야 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말처럼 도전하는 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있을 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모교와 총동문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도울 것입니다. 개교 47년을 맞아 개관한 스타센터와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7번째 생일날을 맞아 5만 5천여 전주대 가족들이 모교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칼럼



양정호 교수
(경영학부 물류무역전공)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저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높은 성과를 내고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재능이나 적성,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적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중에서 재능을 발견하였을 때 그 가치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축구에 대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축구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이 사람이 뛰어난 축구선수가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학문에 대한 열정도 마찬가지이다. IQ가 높은 사람이나 지적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학문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혹은 학구열이 없다면 학문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란 많지 않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재능이나 적성, 그리고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의지(노력)와 열정의 차이에 대해 실리콘 벨리의 Virtual CEO로 불리는 랜디 코미사르는 "열정이란 어떤 대상에 끌려드는 것을 말하지만, 의지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일로 떠밀려 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지만 좋은 성과를 내기

열정적인 삶

위해서는 의지(노력)라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일을 할 때보다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오래도록 질리지 않게 꾸준히 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더 많이 자주 떠오르게 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것이므로 의지(노력)이 따로 필요치 않으며 자연스럽게 열정이 생긴다.

아이와 놀아줘야겠다고 의지로 버티는 부모와 놀이에 흠뻑 빠져버린 아이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부모는 지쳐가지만 아이들은 지질 줄을 모르고 논다. 논어에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그 일을 오래도록 지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열정이다. 우리 모드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나 적성, 열정이지만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대학 4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의 학생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만 한다는 동기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싶다. 학문 탐구에 대한 열정, 현재의 삶에 대한 열정, 미래의 성공에 대한 열정으로 매일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사설

원스톱형 캠퍼스 몰 Star Center의 의미

우리대학이 개교 47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인 원스톱형 캠퍼스 건물인 Star Center의 개관식을 하게 되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5월2일부터 4일까지 교내 일원에서 시민감사축제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Star Center는 총면적 34,592㎡(10,464평)와 공사비 320억원을 투자한 우리학교 개교 이래의 최대 건물이다. 우리 모두는 이 Star Center의 개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Star Center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Star Center의 개관을 통해 우리대학의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Star Center는 총 4가지 영역인 CENTRAL LIBRARY, CONVENTION CENTER, COMPUTER CENTER, FACULTY CENTER의 기능을 통합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 최첨단 시설의 도서관은 대학의 중심인 연구의 기능을, 컨벤션센터는 교육을, 컴퓨터 센터는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 종합서비스 기능을, 그리고 펠로피 센터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이다. 이 네가지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건물이 Star Center이며 이 Star Center가 전주대학교 캠퍼스의 한 중앙에 위치해 있다. 즉 Star Center는 교육과 연구, 행정, 그리고 편의를 모든 유기적으로 갖춘 전주대학교의 한 중심이다. Star Center처럼 학생, 교수,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주민 모두가 통합되어 전주대학교의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Star Center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이다.

스타센터는 스타센터 이름에서 '센터'라는 단어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대학 캠퍼스의 중앙지점에 위치해 우리대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캠퍼스 모든 곳과 연결되는 편리한 접근성과 함께 캠퍼스의 가장 중심인 공간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미래지향적 교육공간이 되었다. 또한 스타센터는 기존의 지성과 상아탑의 상징으로 건물이 사람을 압도하고,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며, 조용하고, 수직적인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의 성향에 맞춰 자유롭고 접근성이 높고, 마치 거실에서 책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편안한 장소로 설계된 자유로운 사고를 위한 건물이다.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는 이곳은 이용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즉 다양한 건축양식이 모여 통일성과 통합성, 질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Star Center처럼 우리대학의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다양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통일성과 통합성, 그리고 질서성을 유지하여 전주대학의 미래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곧 우리의 미래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설계자인 아론 탐은 스타센터를 설계하면서 시편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구절을 떠올렸다고 한다. 바로 하느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어진 스타센터는 천국을 꿈꾸는 전주대학교를 상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식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계속 전수 받을 수 있는 기독교 명문사학인 전주대학교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Star Center는 유비쿼터스 빌딩이며, 신세대감각에 맞는 조형미를 지니고 있으며,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공간 디자인이 특색이다. 이와 더불어 교직원, 동문, 지역인사가 함께 건축비의 일부를 모금한 점 등이 의미가 깊다. 이는 스타센터는 전주대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전주 전 지역 사회를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 전주대학만의 독창성을 나타내 주는 곳이기도 하다. Star Center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전주대학교의 비전을 더 넓히고 더 넓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전진하는 전주대학교가 되어 미래가 있고(Vision University), 나눔이 있으며(Sharing University), 따뜻한 디지털대학(Warm Digital University), 2012년 학생만족도 100% 대학, 교육 중심 세계수준대학(World-class University), 21세기형 인재인 Superstar를 육성하는 환태평양 2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여 더 멋진 대학 전주대학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스타센터 개관 및 비전선포식 이남식 총장 인터뷰



개교 47주년을 맞이해 스타센터 완공이 우리대학에 어떤 영향과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비전선포식이 가지는 의미와 그 비전을 통해 우리 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기 위해 이남식 총장(사진)을 만나보았다.

1. 스타센터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타센터는 도서관과 컨벤션센터, 푸드 코트 등 학생들 편의를 위해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도서관으로 예전에 도서관은 너무 멀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힘들었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해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발전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스타센터의 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에 있음으로 언제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센터는 학교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스타센터는 학생 중심적인 설계를 하였으며, 학생들이 하루 일과를 모두 스타센터 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캠퍼스 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 전용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2. 스타센터를 짓는데 우려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애초에도 많았을 것 같은데, 건축에 대해 시작에서 마무리 되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타센터는 우리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WEST TOP 2010으로 1990년대부터 학술 종합관을 짓겠다 라는 계획에 준비되어 왔고, 2003년에 부임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중장기 계획들을 보게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건물을 짓겠다는 노력과 내부 토의를 통해서 2007년부터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건축설계를 하기위해 국제설계경기를 열어 디자인을 공모했습니다. 세계적인 여러 건축가들에게 설계공모를 받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들이 모인 위원회가 RAD에서 디자인한 현재의 스타센터 설계안을 선정하였고, 예룬 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디자인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중에 경제위기로 인해 물가상승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획한 예산안 안에서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스타센터 안에서의 인테리어까지 총체적으로 스타센터를 짓는데 32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총면적 34,592㎡(10,464평)으로 주차장 3000평(230대)을 제외한 7800평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3. 스타센터가 거대한 복합건물이라 아직 사용하는 법에 대해 모르는 학우가 많습니다. 스타센터의 기능과 제대로 된 활용방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Star Center는 총 4가지 영역인 CENTRAL LIBRARY, CONVENTION CENTER, COMPUTER CENTER, FACULTY CENTER의 기능을 통합수행하기 위한 4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첨단 시설의 도서관은 대학의 중심인 연구의 기능을, 컨벤션센터는 교육을, 컴퓨터 센터는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 종합서비스 기능을, 그리고 펠리티 센터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입니다. 즉 Star Center는 교육과 연구, 행정, 그리고 편의를 모든 유기적으로 갖춘 전주대학교의 한 중심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스타센터에 있는 모든 공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유 연람실 800실 개관식 열람실이 600석 스테디 룸이 5개 멀티미디어 기체가 수백대가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예약을 통해 두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시간이 지나고 더 필요하면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법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센터 도서관은 우리대학 학생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로 졸업생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개방을 하되 사용료를 받아 회원제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대학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1년간은 재학생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준비기간을 1년을 뚫으로써 그 동안은 도서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일반인보다는 저렴하게 회원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혜택에 의한 차별로써 전주대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싶었습니다.

4. 스타센터의 로고의 의미는?

CI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스타센터의 건물의 모양이 기이학적인 형태인데 건물을 이루고 있는 기이학적인 형태를 모아 보면 빈공이 STAR라는 모양이 됩니다. (사진 참고)



5. 이번 스타센터를 만드셨어서 새로운 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푸드 코트가 365일 운영하여 이전 도서관은 주말에 식당을 열지 않아 도서관을 찾아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는 매주 많은 학술대회가 열림으로써 전국적으로 많은 교수님과 그 분야

스타센터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중심이며 우리의 미래이다.



를 연구하는 학자나 대학원생들에게 전주대를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학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목적 홀에서는 평소에는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회의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어서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 빈 시간에 학교에 머물 곳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면학분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대를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1일 이용회수가 300명에 그쳤지만, 지금은 학교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도서관은 편리해야 학생들이 활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정보통신원에서 색다른 대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학구적인 측면과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 스타센터가 우리학교의 발전과 전북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전주대가 전주 지역을 대표하는 지식기반센터로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대학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지역혁신을 이끌어가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하나 짓더라도 남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그 공간이 주는 여러 가지 느낌이 우리를 발전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꿈꾸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지만 그 건축물이 다시 우리를 만들어가듯이, 스타센터를 통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기독교 대학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대학이 미래의 인재들의 산실이 되고,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으로써 전라북도를 이끌러 간다는 의미가 지역사회에 전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7. 5월2일-4일 사이에 스타센터 개관기념 행사와 더불어 시민감사축제가 교내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행사의 주제와 의미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2003년부터 시민 감사축제를 하고 있는데 시민감사축제는 대학이 대학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학과별 학습과 교육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리고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몇 년간 한지축제나 한옥 축제 때 여러 학과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체크, 아로마 테라피, 카이로프랙틱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학교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믿음직하고 든든한 대학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센터

터 개관기념행사와 더불어 학생회관 앞 부스를 열어서 각 전공별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방문객에게 우리학과에서는 이런 것을 공부하고 이런 결과물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이러한 기간에 첫 번째로 초대하고 싶은 분들은 학부 모님들입니다. 이번기회에 학생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오셔서 행사에 참여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부모님께서 '등록금 내시느라 수고했지만 그것들이 참 보람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8. 스타센터 개관을 맞이하여 우리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비전선포식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지니고 있는데 2000년대는 2010년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의 10년간 2020년을 향한 비전을 계획했는데 이 비전을 선포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10년간은 더 멋진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했고, 새로운 단과대학이나 새로운 커리큘럼이 많이 만들어 졌는데, 이제 앞으로의 10년간의 진정한 기독교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9.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실 비전과 당부 말씀은?

스타센터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룬 탄이라는 건축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 19장 1-2 말씀의 영감으로 멋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장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스타센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생시절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에서 목적이 있는 삶으로 변화하고, 여러분들에게 스타센터가 천국을 꿈꾸는 학교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식과 꿈을 계속 받는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 배우고 익히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적을 발견하는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평생 자기를 위해 쓴 것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통해서 나의 삶이 그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 안에서 그렇게 되는 인생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 : 이대중, 김광룡, 권희량, 전유경 기자

2011 장기근속 수상자 & 수퍼스타 교수·직원상 수상자

장기근속 수상

■ 30년



최중열 교수
(인문대학)



유정숙 교수
(경영학부 사법대학)



김형길 교수
(인문대학)



김연형 교수
(경영대학)



조은영 교수
(인문대학)



박현조 교수
(예체능대학)



하수경 교수
(예체능대학)



임철호 교수
(사법대학)



이은휘 교수
(교육대학원)



이중헌 실장
(평가감사실)



이용수 실장
(행정지원실)



이희수 실장
(시설지원실)



정규진 과장
(행정지원실)



정재서 계장
(시설지원실)



이규선 계장
(시설지원실)

■ 20년



김정호 교수
(경영대학)



송해안 교수
(경영대학)



김종훈 교수
(대체의학대학)



이주하 교수
(사법대학)



민규식 교수
(경영대학)



이기훈 교수
(경영대학)



심동희 교수
(공과대학)



양희산 교수
(경영대학)



문홍진 교수
(공과대학)



류승요 교수
(입학지원실)

■ 10년



박현서 교수
(대체의학대학)



한복진 교수
(문화관광대학)



노성호 교수
(사회과학대학)



유규선 교수
(공과대학)



권용식 교수
(공과대학)



김호준 교수
(공과대학)



김남희 교수
(사법대학)



류재윤 교수
(사법대학)



박병도 교수
(문화산업대학)



김영형 과장
(시설지원실)



이용노 계장
(총무지원실)



하헌일 계장
(관재지원실)



이재환 계장
(정보통신지원실)



전진성 계장
(국제교육교류지원실)



조동기 계장
(교무지원실)



송태진 계장
(재무지원실)



김경훈 계장
(정보통신지원실)



박동균 계장
(행정지원실)

수퍼스타 교수·직원상

■ Best Researcher 부분 수상자



이상옥 교수
(중국언어문화전공)



변주승 교수
(역사문화콘텐츠전공)



최희섭 교수
(영미언어문화전공)



임애란 교수
(과학교육과)



강홍석 교수
(나노 신소재공학과)



최충석 교수
(소방안전공학과)



박병도 교수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 Best Lecturer 부분 수상자 (비전임교원)



박은진 교수
(경매와 친양)



이만춘 교수
(법·경찰행정학부)



이기화 교수
(금융보험부동산학부)



신준호 교수
(방사선학과)



이호문 교수
(건축학과)



엄윤섭 교수
(체육학부)



경문수 교수
(문화관광학부)



조병균 교수
(교육학과)



유정우 교수
(영상콘텐츠학부)



이 난 교수
(교양학부)

■ Best Lecturer 부분 수상자



박소연 교수
(물리치료학과)



김주란 교수
(광고흥보건공)



김남희 교수
(수학교육학과)



전재홍 계장
(학생지원실)



이범수 계장
(관재지원실)



유봉수 계장
(대외협력홍보실)

■ 수퍼스타 직원상

“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
당신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외협력홍보실 소개〉

대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피(P)가 나도록 알(R)려야 한다



대외협력홍보실 실장 이면영의 업무는 대외협력, 홍보, 발전기금, 디자인 등 4개의 업무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외협력홍보실은 몇 개의 커다란 업무군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면영 실장을 비롯한 이생주(디자인), 김미정(디자인), 유봉수(대외협력, 발전기금), 이윤경(홍보) 등 5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한다.

대외협력홍보실이 생기게 된 배경은 시대의 흐름과 구조조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래 90년대 이전에 대학사회에는 홍보실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90년대 들어 대학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기획과 소속에 홍보 관련 담당직원이 생겨나면서 업무의 세분화가 시작되었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 변천에 따라 주요업무의 비중이 시대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라 부서들이 통합되거나 조정되었기 때문에 홍보계의 중요성이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대외협력 업무의 경우도 최근에 생성한 부서 중 하나로서 발전하여 지금의 대외협력홍보실이 생기게 되었다.

대외협력 홍보실은 발전기금 모금이나 대외기관과의 협력에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 만들어진 부서이다. 이 부서의 업무 중 디자인 업무는 인쇄출판물(홍보브로슈어, 보도자료집, 교직원수첩, 다이어리, 카렌다, 연하카드, 발전기금 뉴스레터, 입시요강, 대학홍보물 등), 기획 및 디자인 컨셉, 레이아웃 작업, 전 과정 UI를 적용하여 감리, 이미지사진 촬영 및 관리, 패키지디자인, 광고 응용디자인, 웹메일 디자인, 등이다.

대외협력 업무는 협력·협약 행사 지원, 시민감사축제, 비전리더스희, JJCA 운영, 한국지역대학연합 등

관리운영, 대학발전기금 모금, 기금조성 실무위원회 운영관리, 동문회 실시, DB 관리, 협력·협약 행사를 준비한다.

또한 홍보업무의 경우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와 일련의 미디어업무, 웹메일 서비스, 보도자료 스크랩, 보관 관리, 대내·외 행사 사진 촬영, 홍보자료 관리 및 제공, 인쇄출판(홍보브로슈어, 보도자료집, 교직원수첩, 다이어리, 카렌다), PDP, 신청문 운영, (홍보용 DVD, CF, 홍보물 등 게재 및 관리), 홍보대사 운영(홍보대사 선발 및 교육 관리), 한국대학홍보협회 운영, 기념품 배부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과거에는 피(p)할 것은 피하고, 알(R)릴 것은 알리자는 경향이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여 피(p)가 나도록 알(R)리자는 경향으로 지향점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대학은 연간 1,300건 이상의 보도자료 배부로 많은 뉴스소스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대학홍보의 장점은 내부인들의 구전홍보이기 때문에 대학가족들의 홍보마인드를 가지고 대학에 대한 호평과 구전홍보가 지속되었으면 한다. 또한 발전기금의 경우 연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심시일반으로 모금에 동참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면영실장은 "우리대학이 최근들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21세기의 주역이 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자긍심을 갖고 대외협력 홍보실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를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전유정, 김광룡 기자

동아리

그랜드슬램은 “가족”이다



그랜드슬램은 테니스 동아리로서 올해 33기를 맞이했다. 1기부터 졸업선배까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함께 동아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까닭은 “서로간의 유대관계가 남다르기 때문이다”라며 동아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랜드슬램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테니스 레슨을 하고, 한달 주기로 진행되는 ‘전북권 대학교 동아리 테니스대회’에 출전한다. 작년에는 ‘전북권 동아리(학교 대항전) 단체전’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활동적인 동아리이다. 회장 이지균 학우(체육학부 2)는 “가족적인 동아리 분위기로 테니스 레슨과 대회를 통해 일취월장해진 테니스 실력을 느낄 수 있다. 항상 열려있는 그랜드슬램, 학생회관 508호로 오세요” 라고 말했다.

/ 권희망 기자

- 동아리명 : 그랜드슬램.
- 위치 : 학생회관 5층 508호.
- 연락처 : 이지균 회장. 010-3592-0607.

게릴라 인터뷰



게릴라 인터뷰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편집자주

Q. 스타센터에 가는 기대 스타센터에서 마음에 드는 '장소'는??

-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푸드코트에 있는 커피숍과 테이블이 좋다. 진서경(사회복지학 3)
- 쾌적한 공부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책이 많고, 도서관 시설도 좋다. 김명옥(일본 언어문화학부 2)
- 대학교 내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되었으면 한다. 도서관 3층이 좋다. 특히 영화 보는곳!! 강지윤(종합파이낸스전공 2)
- 스타센터가 좀더 청결해졌으면 한다. 분수대가 제일 좋은데, 물도 깨끗하고 매일 청결된 상태였으면 좋겠다. 이에원(문헌정보학 2)
-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 지고, 좀더 이용하기 쉽게 되었으면 좋겠다. 영화보는 DVD실이 좋은데, 소음을 줄였으면 좋겠다. 강지수(행정학 3)
- 스타센터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안내판이나, 책자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진한(레저스포츠 3)
-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보다 편의성과 시간 단축의 효율을 제공한다는 점에 더욱 기대된다. 이리닝존과 노트북존이 좋다. 이관희(상담학 3)

※ 기타의견

- 도서관 2층에 있는 세워져있는 기둥이 멋있다. 익명(컴퓨터 공학 4)
- 아늑하고, 첨단시설이라 얼리어답터 같다. 김종인(외식산업학 3)
- 가까워서 사용이 편리해졌다. 자료실 즉, 역시 책이 있는 곳이 제일 좋다. 박초롱(사복지학 2)

* 소개를 원하시는 동아리와 게릴라 인터뷰 질문이 떠오른 분은 전주대신문사 클럽(http://jjnews.cyworld.com)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스도쿠 풀어보기

775호

5	1		9	8		7
	3	8		2		1 4
		6		7 5		
1	6	7				5
8				4 7 3		
		4 2		7		
6 2		8				9
9		3	6	4 2		

★ 규칙 ★

1. 아홉 개의 3×3 칸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2. 아홉 가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3. 아홉 세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 정답자에게는 선착순(전공별 1명)으로 6명을 선발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곳 : jjnews@jj.ac.kr (이름, 전공, 학년, 연락처를 기재해주름, 전공, 학년,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연락처: 권희망기자(010-3424-0804)

774호 정답

1	7	4	5	6	8	3	9	2
6	2	3	9	7	4	8	1	5
9	5	8	3	1	2	6	7	4
2	8	1	4	5	9	7	6	3
5	6	7	8	3	1	4	2	9
4	3	9	7	2	6	5	8	1
3	1	5	2	8	7	9	4	6
7	4	6	1	9	3	2	5	8
8	9	2	6	4	5	1	3	7

★ 774호 당첨자 ★

- 김지혜 (일본언어학 3) 이슬비 (생활체육전공 2)
- 장석운 (컴퓨터공학 4) 최솔지 (가정교육학 4)
- 박상우 (재활학 2) 차운주 (기계자동차공학 4)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길구 교수
(교양학부)

이 얼마나 봄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까? 봄은 우리가 생명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것을 시창각으로 교훈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런 꽃과 나무들이 봄에 생명을 갖는 것은 스스로의 가지치기,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자기의 몸의 군살을 버리므로써 가능합니다. 살기위하여 버리고 자르는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만족함이 없이. 마치 밭 빠진 독과 같이. 인류는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방법을 써 보았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자들과 같이 욕망을 거부해 보는 것, 또 하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러나 두 가지 다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3의 처방을 제시 합니다. “버리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과 모든 재산을 버렸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버리는 것, 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주님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바쳤으니 너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 네가 버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급하다고 해서 반드시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다가는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시작해야 우리 인생에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짊어지라고, 해결하라고, 처리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들을 짊어질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가된 중요한 십자가들을 내가 먼저 짊어질 수 있어야 우리 삶에는 질서와 평화가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많은 급한 일들 가운데 가장 급한 일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곧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만을 짊어지려 합니다. 생명에 관련된 것을 먼저 짊어지려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시는 것을 먼저 하려합니다. 저는 저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나무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인생은 희망이 없다.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욕의 고백이다. “나무는 희망이 있으나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높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들고 가지가 떨어져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욥14:7-13).

▼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는 인생을 사도 바울은 ‘곤곤한 인생’이라 고백한다. 그리고 그 곤고함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욕 역시 ‘참 희망의 근원’을 알고 있기에 울부짖는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욥14:14).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에게 전부는 ‘먹고 마시자’ 뿐이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전 15:32).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뜸으며 굵은 베를 띠라’는 주 만군의 여호와와 명령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다(사22:12,13). ‘이 세상이 전부’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향락을 위해 마음과 온 몸을 던진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소망을 둔다. 나무보다 못한 인생을 산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문이다.

▼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나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분은 길ियो 진리요 생명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다.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매달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 속 깊은 고요한 울림으로 깊이 묵상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15:19). 아멘.

장천철처장(선교지원처)



“내게 주신 자” (요17:6-10)



최임곤 목사
(사범대 전담목회자, 신일교회)

흔히 사람을 가르켜 사회적 존재라 말합니다. 스스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관계를 마틴 부버의 말처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추구해 가는 수단이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많은 문제를 노정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얕은 관계이든 깊은 관계이든 많게는 수 천명에서 적게는 몇 십명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를 우연으로 보고 인연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생각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또 나에게 맡겨

주셔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도록 섭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도움을 주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관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평가를 받으며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입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나 세상의 권세, 세상의 기업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 중에서 오직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온 천하 만국보다도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셨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태를 보면 너무나 사람이외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는 국민을 위한 국가이기 보다는 국가를 위한 국민이기를 요구하는 독재국가 널려있고, 기업이 사람을 위한 기업임을 잊어 버리고 오직 기업을 위한 사람으로 여기는 가치의 전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이렇게 전도된 가치를 바로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일터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사람들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로 인하여 생명력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연합예배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이 시작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4월 26일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다섯 번 진행되었다. 희망홀에서 진행된 금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드리므로 전주대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참된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게스트로 강찬(찬양사역자)과 JR엔터테인먼트

트(크리스천 컬처 컴퍼니)가 특별 출연하여 은혜를 더 하였으며, 김승수목사(교목, 대학교회)는 “부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다. 메시지를 통해 “전주대학교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교회는 4월 24일 주일 11시에 대학교회 예배당에서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렸다.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의 신앙을 깊이 되새기는 자리였다. 이번 부활절 예배에는 7명의 세례자와 2명의 입교자가 세례식 및 입교식을 진행 하였다. 특별히 7명의 세례자중 4명은 중국유학생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중국어 예배에 참석하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학생이었다.

스타센터 개관 기념 “천국 슈퍼스타를 꿈꾸다”

전주대학교&극동방송 “함께하는 콘서트”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는 5월 3일 오후 7시 본교 JJ아트홀에서 “천국 슈퍼스타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갖는다.

본교와 극동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콘서트는 스타센터 개관을 축하하며 기독교 청년들에게 찬양의 은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이번 콘서트는 김혜민PD(극동방송)와 장혁재 교수(소리엘)가 진행을, 천관웅 목사(내이름아시죠 외)와 지영(그리스도의 계절 외)이 게스트로 참여해 무대를 더욱 빛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북 크리스천 색소폰 앙상블 단원

전북 크리스천 색소폰 앙상블 연주회 열려

스타센터개관기념으로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는 5월 12일(월) 저녁 7시30분 본교 JJ아트홀에서 전북지역 크리스천 800여명을 초청하여 ‘전북크리스천 색소폰 앙상블 창단 연주

회’를 갖는다. 연주회는 김혜민 PD(극동방송)의 진행, 장선철 선교처장의 기도, 이남식 총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테너 최동규 교수(한일장신대) Modern Saxophone Quintine, 할네우스

합창단과 협연한다. 앙상블은 전북지역 크리스천 30여명으로 이루어진 크리스천 아마추어 색소폰 앙상블이며, 지휘는 조상익 교수(이리성산교회)가 맡고있다.

학생생활관

예술작품 감상하는 법

- 1탄 매혹(attractions)으로써 영화보기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은 4월 27일(수) 스타타워 세미나실203호에서 영화평론가 전찬일을 초청하여 생활관생들을 대상으로 영화 감상법에 대한 강의 진행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 감상 프로그램은 4월 26일까지 스타타워 운영사

무실에서 접수 받았다. 관생들의 문화적 소양 향상과 영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이번 명사 특강을 준비했다. 곧 있을 전주 국제영화제에 앞서 진행되는 만큼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관생들의 영화를 관람하는 관점이 넓어졌으면 한다.

5월 단기 강좌 수강생 모집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에서는 5월 단기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일(월) 케익만들기, 18일(수) 패션 페인팅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각 프로그램 마다 20명씩 선착순으로 운영한다. 이번 단기 강좌

이외에도 학생생활관에서는 요가, 토익, 과자만들기, 단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관생들의 취미 생활 및 성적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대학교회는 2011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2011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대학교회 예배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는 매일 100여명의 학생들

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뜨겁게 기도하였다. 특별히 캠퍼스 복음화와 전주대학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으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2011년도 상반기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목표를 내걸고 시작한 27기 아버지학교가 4월 2일(토)부터 5주간에 걸쳐 전주비전대학교 선교생활관에서, 18기

전주어머니학교가 3월 31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9시~ 오후3시까지 전주 은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개교 47주년 및 스타센터 개관 기념 선교지원처 행사 일정

- 05.02(월) 전북 크리스천 색소폰 앙상블
일시 :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 예술관 JJ 아트홀
- 05.03(화)
전주대학교-극동방송 함께하는 콘서트“천국 슈퍼스타를 꿈꾸다”
일시 : 오후 7시, 장소 : 예술관 JJ 아트홀
- 05.04(수) 제 1회 전국 중·고등학생 예배예술 경연대회
예선 : 오전 11시, 본선 : 오후 4시 / 장소: 예술관 JJ 아트홀

선교동정 | 장선철 처장 특강

- 04. 17(일) 모자이크 교회
- 04. 18(월) 김제교육청
- 04. 22(금) 서울명일교회
- 04. 29(금) 청평감리교회

<< 대학교회 예배시간 >>

- 새벽예배 월~금 06:00
- 주일낮예배 주일 11:00
- 대학청년부 주일 13:30
- 수요예배 수요일 19:00

外食产业学科‘首尔国际料理经营大会’连续2年蝉联金牌

-全州地区特色饮食保护开发受到好评-



大会上获得金牌的外食产业学科同学们

外食产业学科(学科长 民雄 首尔国际料理经营大会’上,取得 此次大会的比赛项目由凉食和熟食 两部分组成,针对全北周边地区及

全州地区的传统特色饮食进行保护开发。外食产业学科的同学也尝试将食谱商品化,在独创性,实用性,表现性等评判标准上得到了评判委员们的一致好评。

权孝真教授作为指导教师参加了此次大会,4年级的高允美,金柳美同学,3年级的李卢美同学,2年级的孙国,金恩京,权柳真,金民载,金在贤等8名同学参加了比赛,参赛的8名同学在校内自主成立了烹饪社团并积极活动。李卢美(3)同学说,“过程准备不是很充分的情况下能够获得金牌,确实很高兴,能为我们学校争光,即使微不足道,我也感觉很充实,希望以后能够有机会参加国际规模的大会”。民雄学科长表示,“继去年之后,我们连续两年蝉联2个比赛项目的金牌,成为我校的荣耀,希望能够继续在展示会和料理大会等全国赛事上崭露头角,取得更加卓越的成绩”。/权希望 记者

“自我理解和进路设定”引导项目启动

人生开发支援室在全校范围内选拔了18名1~2年级学生,18名3~4年级学生,在集体商谈室(Star中心 237号)启动了于4月28日开始到5月3日截止,为期6天的“进路设定项目”。

本活动项目旨在帮助学生进行自我理解和进路设定,以及指导学生如何做好相关的进路和就业准备。1~2年级的进路指定项目以‘放飞梦想,JJ’为主题,3~4年级以‘成功大学生活的导航仪’为主题。

此项目为活动中心项目,授予结业证及Star-T积分。

/权希望 记者



双方期待通过此次产学研协力能对连锁零售及国家经济发展做出贡献

我校与韩国连锁零售协会签署谅解备忘录

-提出国内连锁零售产业的远景规划-

我校于18日上午11时在韩国连锁零售协会大讲堂里,与社团法人韩国连锁零售协会(会长 金龙万)缔结了MOU。

此次协议,双方期待通过产学研协力对连锁零售及国家经济发展做出贡献,同时,双方约定在就业支援及项目共同参与,企业现场实

习,连锁零售领域共同研究等众多领域展开合作。李南植总长表示,“希望通过此次协议,系统的实现韩食国际化的目标,通过搜集最新的动向和情报,为今后在连锁零售产业领域的共同研究和创造就业机会,以及未来成长动力提供长足的发展空间”。另外,李总长被委任

为‘2010世界连锁零售大会’顾问委员长,并在去年10月举行的‘2010 APPC’首尔总会上担任顾问,为国内连锁零售产业的长远发展规划了方向。/权希望 记者

就业达人的接盘一

‘青年大学生雇佣中心’投入运营

-把握青春!!奔向未来!!-



为解决我校大学生的就业问题,位于学生会馆1楼的常驻校园民间就业专业顾问机构‘青年大学生雇佣中心’正式运营。

青年大学生雇佣中心由3名就业领域的专家长期坐阵,为青年大学生提供面试和各种就业支援项目,同时针对学生本人的具体情况和能力介绍对口的工作单位,提供职业心理检测,职业探索,一对一就业支援项目等服务。希望获取此类服务的同学可以登录青年雇佣电脑网络系统,在Job Young栏目下点击进入本人所属大学,预约与

专家顾问的商谈时间,学生们可以通过预约访问,也可以在本人方便的时候无预约访问商谈。

这一举措可以有效地提高我校毕业生的就业率,即使不是4年级的毕业生,也可以充分利用各种针对1~3年级的项目。青年大学生雇佣中心的相关负责人表示,“希望这一机构能成为广大同学摆脱难以向教授咨询的就业困惑,变得踏实自信的场所,也希望广大同学能够谨记‘把握青春,奔向未来’的口号,成为充满活力和竞争力的青年大学生”。/权希望 记者

经典语录

经典语录1:
无论你的收入是多少,记得分成五份进行规划投资:增加对身体的投资,让身体始终好用;增加对社交的投资,扩大你的人脉;增加对学习的投资,加强你的自信;增加对旅游的投资,扩大你的见闻;增加对未来的投资,增加你的收益。好好规划落实,你会发现你的人生逐步会有大量盈余。

经典语录2:
过去的一页,能不翻就不要翻,翻落了灰尘会迷了双眼。有些人说不出哪里好,但就是谁都替代不了!那些以前说着永不分离的人,早已轻轻落在天涯了。收拾好心情,继续走吧。错过花,你将收获果,错过这一个,你才会遇到下一个。

经典语录3:
被人误解的时候能微微一笑,这是一种素养;受委屈的时候能坦然

的一笑,这是一种大度;吃亏的时候能开心的一笑,这是一种豁达;无奈的时候能达观的一笑,这是一种境界;危难的时候能泰然的一笑,这是一种大气;被轻蔑的时候能平静的一笑,这是一种自信;失恋的时候能轻轻的一笑,这是一种洒脱。

经典语录4:
人生途中,有些是无法逃避的,比如命运;有些是无法更改的,比如

情绪;有些是难以磨灭的,比如记忆;有些是难以搁置的,比如爱恋……与其被动地承受,不如勇敢地面对;与其鸟宿檐下,不如击起风雨;与其在沉默中孤独,不如在抗争中爆发……路越远,险越大,险越多,只要走过去了,人生就会更精彩。

经典语录5:
你改变不了环境,但你可以改变自己;你改变不了事实,但你可以改

变态度;你改变不了过去,但你可以改变现在;你不能控制他人,但你可以掌握自己;你不能预知明天,但你可以把握今天;你不可以样样顺利,但你可以事事尽心;你不能延伸生命的长度,但你可以决定生命的宽度。

(李海星 国语国文 3年级)

BUY Northern Jeolla's Selection, Promotion as a Northern Jeolla Province Representative Product .

ISO 22000 certification, LOHAS certification, 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ion



The Royal Gochujang (pepper paste) of the Jeonju university school enterprise (head, Jongkyoo Shin) was selected as "Excellent Enterprise" in 2010 Annual Rating of Volunteer Work of School Enterprises ru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got 10% incentive.

The ARVWSE program has supported the school enterprises for 2 years, and after the last year's middle evaluation it decided to keep on supporting 3 years more. These 53 selected school enterprises

including universities, vocational colleges and technical high schools, were given 250 and 120 million won respectively for personnel expenses, field training, facilities equipment, operating and other expenses.

The Royal Gochujang got ISO 22000 certification, LOHAS certification and 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e. At Jeonju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it was awarded the Prize of the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lso it got the grand

prize in 2010 Korea's Food and Environmental Invention Competition, and was selected as a "BUY North Jeolla", which was held the 2nd time, proving excellence of the product and being promoted as North Jeolla province's representative product.

Particularly, the researcher in charge, Jeong-im Chu (Korea's innovative ideas #10-30), was selected as a winner in 15th Korea's Innovative Ideas Association Contest.

In addition, at the 2008 Jeonju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Herbal Gochujang and Gulbijangajji (salted pickles) was selected for excellent product development, and awarded the Prize of the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eanwhile the Royal Gochujang Agency is going to hold a sales event (where you can buy all goods with a 25% special discount) from May 2 to May 14, just arranged to JJ University's anniversary and Star Center opening ceremony.

The 47th Anniversary and Opening Ceremony for Star Center Held

Awards for 43 Faculty and Staff Serving more than 10 years and Superstar Educators and staffs.

Honorary Doctorate Degrees Conferred on Mongjoon Jung, an Incumbent Assemblyman and Richard A. Levao, the President of Bloomfield University.

JJ University will hold its 47th anniversary ceremony and opening ceremony for the Star Center on the campus from May 2nd to May 4th. The opening ceremony for Star Center will be held in Multi-purpose Hall located in Star Center at 4 PM on May 3rd. The ceremony will start with opening performance of Doxology major students,

and will be done as follows: President Nahm-sik Lee's remarkable address, Chief Director of the Executive Director of Shindong Institute, Yongjoh Hah's appreciation message, JJ University alumni's Fund-raising ceremony, a video clip introducing the Star Center by the architect Aaron Ton, tape-cutting and Star Center tour. Before the opening ceremony, JJ University's 47th anniversary ceremony will be held in the JJ Art Hall. In the ceremony Superstar faculty and staff's awards, and faculty contribution's awards will be presented to the 43 faculty and staffs. Also a honorary doctorate degree in Business will be

conferred on Mongjoon Jung, an incumbent assemblyman and a honorary doctorate degree in Education will be conferred on Richard A. Levao, the President of Bloomfield University.

The Star Center, so-called one-stop campus mall, is designed by a internationally-recognized architect Aaron Ton and built by RAD(Research Architecture Design) & GIL GROUP. Its size is 34,592(10,464 pyung), costs 23 billions, and has taken for 4 years. Completing the Star Center, JJ University is truly entering the era of ubiquitous campus.

essay

I Love you, JJ University!



Hun Denis(School of Business)

Hello!~ My name's Denis. I'm a Jeonju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faculty student. I'm glad I was given an opportunity to write to the Jeonju university newspaper and I'd like to tell you my story in short.

I came from sunny hospitable Central Asian country, Uzbekistan. Back in Uzbekistan in 2006 I finished high school and entered World Languages University, majoring in English Philology. From that time on I saw my future somehow connected with English language. But not Korean. Those days there was a tendency (and it is nowadays too, actually) to learn Korean. But most of ethnic Koreans (고려인) used to do it just for fun. Being one of them I kept attending Korean Educational Center and did it as a hobby.

Time was passing by, and many friends of mine, one by one began to go to Korea to study. Studying abroad was my dream. But I, holding stubbornly to my own opinion, continuously thought

that "Korea is not for me". Therewith, two years in a row, in 2007 and 2008 I applied for the scholarship for studying in Korea, but wasn't accepted. I was sure there would be no chance for me. But in the end of 2009 I was offered to try one more time... and was accepted! It was already 2010 year, year of graduation, and in addition I had a nice job at a hotel. I was really standing at the crossroads...it was a stressful time. I had to make a choice and I quited university, resigned workplace and came here. But I never regretted my decision till today!

And I'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people who made the adaptation period, my everyday life better...

More than one year has passed since I came here. I had a lot of unforgettable moments during that time. I want to thank all my Korean language teachers, all the teachers staff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present faculty professors, and my dear international friends!!!

I thank God for giving me such a great chance to be in this beautiful country, studying in Jeonju university!

Three JJ University Students Chosen As Ideal Taekwondo Martial Artists

Our Taekwondo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2011 Ideal Taekwondo Martial Artist Contest hosted by the Korea University Taekwondo Federation in March. The contest took place a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and over one hundred players entered the competition. The final decision came out on April 13, and three JJ University students were chosen as ideal martial artists: Jang Jaehee, Kang Haneul and Kim Taeyun. Jang is a senior, and Kang and Kim are sophomores. They are going to be role models at the events that will be hosted by KUTF at home and abroad this year.

Jang talked about his hopes:

"It's an honor but I know I have to learn more. This is going to be a good chance for me to sharpen my skills. I'll be ready for bigger competitions." Kim said, "I have some troubles with my knee. I'm going through rehabilitation and it'll be OK sooner or later. After that, I think I can make Taekwondo better known in the world." Prof. Choi Kwang Keun was very proud of his students. He said, "Two JJ University students were chosen for the national team, and three as representatives for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Now we have three more Taekwondo representatives! Though our Taekwondo Department is quite young, we have already become a big-n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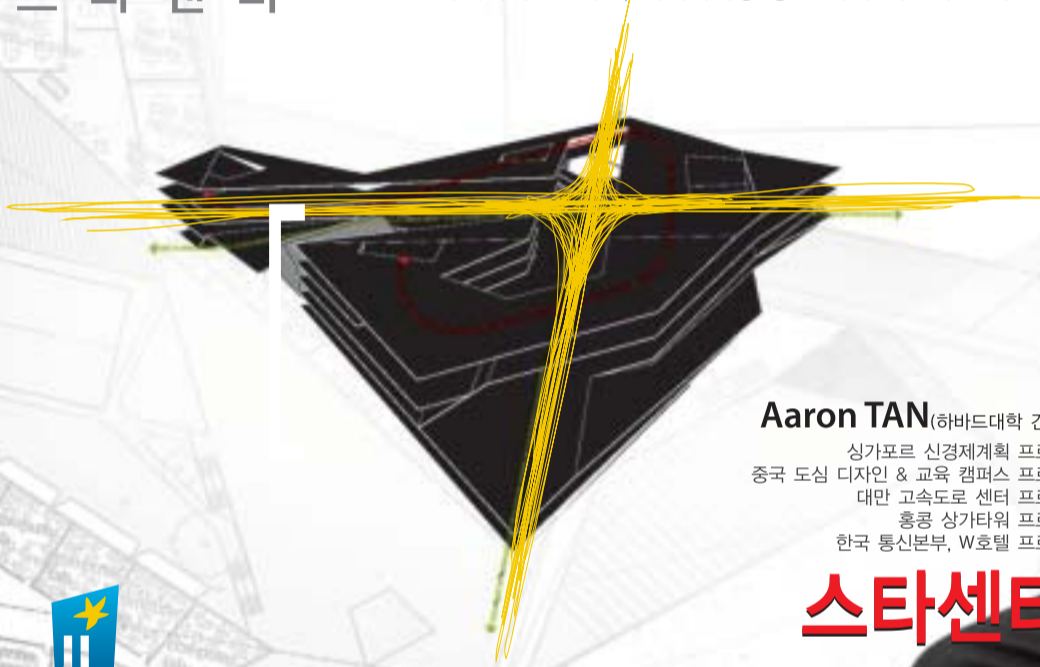
오직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는 대학

스타센터

스타센터

최첨단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조형성이 뛰어난 미래지향적 교육공간

캠퍼스 몰(Campus Mall)로서의 스타센터
미래지향적인 세련된 디자인과 공간(RAD, Aaron Tan 설계)
유비쿼터스도서관, 국제회의장 등 문화적 네트워크 허브 공간



Aaron TAN(하버드대학 건축학)

싱가포르 신경계계획 프로젝트 참가
중국 도심 디자인 & 교육 캠퍼스 프로젝트 참가
대만 고속도로 센터 프로젝트 참가
홍콩 상가타워 프로젝트 참가
한국 통신본부, W호텔 프로젝트 참가

스타센터 개관 기념 행사

- 일 정 : 2011.5.2(월) ~ 4(수)
- 장 소 : 스타센터 및 교내 일원

2011 국제미래학 학술포럼 초청

| 일 시 : 2011. 05. 09(월) - 05. 10(화) (1박 2일)
| 장 소 :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 (국제컨벤션홀)
| 주 제 :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

스타센터 개관 및 출판기념회

| 일 시 : 2011. 05. 19(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서울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

5.4 전국 중·고등학생 예매예술경연대회

- 5,4(수) 13:30~18:00, JJ아트홀
- HUNIC JJ-Techno Festa(산학연관 워크숍)
5,4(수) 14:00~18:30, 다목적홀
- 대체의학 포럼
5,4(수) 14:00~18:00, 소극장

5.3 개교기념식

- 5,3(화) 09:30~10:30, 다목적홀
- 명예박사수여식
5,3(화) 11:00~12:00, 온누리홀
- 스타센터 개관식
5,3(화) 16:00~18:00, 다목적홀
- 사랑과 희망의 책 나르기
5,3(화) 11:00~14:00, 본관 ~ 스타센터
- 학부모 초청 비전 설명회
5,3(화) 13:00~17:00, 학생회관 2층 English Cafe
- 전주대와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콘서트
5,3(화) 19:00~21:00, JJ아트홀
- X.circ. 체험전시회
5,3(화) 10:00~17:00, 어린이영어도서관로비

5.2 북페스티벌

- 5,2(월)~3(화) 10:00~17:00, 스타센터 광장
- QR코드와 함께하는 스타센터 이야기
5,2(월)~3(화) 10:00~17:00, 스타센터 일원
- 총동아리연합회 작품전시회
5,2(월) 10:00~17:00, 학생회관 일원
- 시민감사축제
5,2(월)~4(수) 10:00~18:00, 학생회관 앞 광장
- Wind and Earth 창작 국악 [천년 이야기]
5,2(월) 14:00~16:00, JJ아트홀
- 자자초청 북콘서트
5,2(월) 16:00~18:00, 온누리홀
- 전북크리스천 색소폰 앙상블
5,2(월) 19:30~21:00, JJ아트홀

